

「생활」이라는 말로 우리는 무엇을 파악하고자 하며 파악할 수 있는가?

첫날 각 발표에 대한 토론

다무라 가즈히코

번역: 김 현정

1. 「생활」의 전경: 1900년 전후의 화영/영화 사전을 사례로

일본민속학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평범한 일상/변해가는 일상’ 첫날의 테마이자 기조강연, 문제 설정, 각 발표에 공통된 핵심어는 생활 변화와 생활 개선이었다. 여기서 ‘생활’이란 어떤 내용을 지니며 민속학이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되는가? 이 문제를 통해 각 발표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좀 돌아가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먼저 이 개념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오늘 이루어진 발표들뿐만 아니라 심포지엄의 성격 또한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

일본에서의 ‘생활’이라는 단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거기서 의도된 질적 파악으로의 전환에 관해서는 이와모토 씨가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어휘는 중국에서도 근대 이전의 언어 공간에서 오늘날 우리가 즉시적으로 상상하는 듯한 내용을 자명한 것으로 포함하는 말이 아니었다[岩本, 2009 · 2011]. 먼저 그 부정함에 대해 소묘해 보겠다.

중국어가 다른 언어로 활발히 번역될 필요가 있었던 1900년 전후의 화영/영화 사전을 살펴보자.

1892년에 간행된 Herbert Allen Giles(이후 캠브리지 대학 중국학 교수)에 의한 저명한 『Chinese-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중국어 ‘생’이란 To bear; to bring forth; to produce; to beget. To be born이며, 이런 의미에서 「滅」 「沒」 「死」 「薨」의 반대말이 된다. 또 Raw, fresh; Barbarous; unfamiliar, unacquainted with라는 의미도 있는데 「熟」이 그 반대말이다. 이 외에도 to be alive; living; life라는 의미로도 쓰여지는데, 그 예로 「生理、生活、生業、生涯」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중국어에 대응하는 의미로 Occupation, livelihood가 있다. 특히 두 번째, 즉 「生活」은 to make a living도 의미한다고 해설되었다[Giles, 1892(1912)].² 오늘날의 「生活」의 의미와 가까운 내용도 있다고 지적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근현대 중국의 인쇄출판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美華書館)가 1905년에 발행한 P. Poletti 저 『A Chinese and English Dictionary』는 한자 한자마다 설명이 이루어져 속어의 용례는 거의 없지만, 「生」은 to produce; to bear; life; unripe; new; unpolished; raw; to arise, to grow, to beget라고 해설되어 오늘날 「生活」을 상기시키는

life(이 또한 전후해서 출판된 사전의 용례에서는 「살아 있는 것」을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지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다양한 「生」의 내포된 의미들 중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Poletti, 1905].

위 사전들은 서구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국학자들에 의한 번역 사례를 살펴보자. 1929년에 출판된 『A Complete Chinese=English Dictionary』는 O.Z.Tsang이 편찬한 화영 사전이다. Tsang은 당시 ‘중국의 하버드대학’으로 알려졌던 크리스천 계열 대학의 유력 학교였으며 많은 지식인들을 배출한 St. Jhon’s University(성 요한 대학)의 정규 번역 교원이었다. 그가 편찬한 이 사전에서도 「生活」에 관한 항목은 「生活or生計or生涯」이며 이에 대한 번역어는 「Living; livelihood; Way of life; occupation」이라고 되어 있다[Tsang, 1929]. 언뜻 보기에는 오늘날의 ‘생활’과 유사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환 가능한 어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살아 있는 것」 「生存」 외에 「살아가는 기술」 혹은 그 구체적인 표현(직업)이 중심된 의미였다. 이 사전에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生活程度: the standard of living」과 같이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생활’ 개념의 확대를 찾아볼 수 있으나, 「Biodynamics」의 번역어로 「生活機能学」이 제시되는 등 아직까지 생물학적 생존으로서의 ‘생활’ 즉 「生」 「活」의 양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의 ‘생활’로 번역할 수 있을 듯한 영어에 의한 개념을 어떻게 중국어화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위 검토에서 드러난 ‘생활’에 대한 설명 중 현재 용법과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life 및 living에 주목해보면 1905년에 만들어진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standard Chinese Spoken Language <官話> and Handbook of Translation』에서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Hemeling, 1916].

Life란 「性命、生、生命、命、活命、在世之時間、終身、一生、一輩子」이며 「Manner of living」으로서 「過日子的樣式、行為、舉動、品行、世路、平生的境遇、力、氣力、精力」을 들었다. High life의 번역어로 「高等生活」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生活、生機、生氣」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Animation」이며 이 항목에서 오늘날 ‘생활’과 가장 가까운 번역어는 Not a daily necessity of life의 번역어 「非民生日用所必需」의 「民生」이라고 할 수 있겠다.³ 한편 Standard of living의 번역어로 「生活程度、生事程準、國民生計階級」이 보인다. 이 번역어를 둘러싼 지적 배경은 후술하는 타오 멩허(陶孟和) 등의 연구로 전개되어 갔다.

관련 어구도 비슷하여 Livelihood의 의미로 「養廉、養贍、營生、生活之計、生計、養生之計、生涯」와 같은 뜻이 부여되어 to get a livelihood는 「過日子、度日、糊口、生活、營生」으로 설명되었다. 또 Living alive는 「活的、活著、活、生活」이며 Living(livelihood)의 의미로는 「養廉、營生、生活之計、養生之計、生計、生涯」가 해당된다고 여겨졌다.

이 사전에서도 ‘생활’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상황을 지시하며 당시의 의미로 보아 「生理」, 「生涯」와 동일한 범주의 단어였다. 즉, 살아가기 위한 수입과 직업, 그 기술과 같은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1900년 전후의 영어/중국어 사전에 나타난 뜻과 현대적 의미 사이의 불일치를 최근에 편찬된 고어사전을 통해 검증해 보겠다. 고전 시대 어휘의 의미를 해설한 『近代漢語詞典』에 따르면 ‘생활’이란 「工作、活計」 「物件、物品」을 뜻하며, 전자에 대해서는 『独角牛』, 『金瓶梅詞話』의 사례가 언급되었다. 이들은 모두 생계, 생업에 관한 사례이다[許少峰, 1997]. 유사한 취지로 편찬된 『漢字古今義合解字典』에서는 「生」의 자의에 대해 「①成出、生長、②人的出生、生育、③產生、發生、④活著、生存、⑤生產、⑥生計、生活、⑦生命、⑧一生、卒生」이라고 제시하였다. 여섯 번째에 ‘생활’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는 ‘생계’와 같은 범주에 있다[許威漢·陳秋祥, 2002]. 실제로 7번의 용법

해설로 『捕蛇者說』의 『而鄉隣之生日蹙、殫其地之出、竭其廬之入、号呼而轉徙、饑渴而頓踣』의 ‘생’이 해당된다고 하지만, 현재적 ‘생활’의 의미로서는 같은 텍스트 중에서도 후반의 『故為之說、以俟夫觀人風者得焉』의 『人風』이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1900년 전후의 영화 사진 및 고전 중국어에 관한 사전을 가지고 간단히 검토해보았다. 이상을 통해서 ‘생활’이라는 개념이 현재적 ‘생활’과는 다른 의미, 적어도 예를 들자면 『The Oxford Chinese Dictionary』(2010)에 기술된 ‘생활’로 시작되는 18개의 번역어(예를 들어 생활필수품=daily necessities, 생활방식=way of life, 생활조건=living conditions, 생활작풍=conduct) 등의 함의와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중국 근현대의 수입 어휘를 다룬 고전적 명저인 『現代漢語外來詞研究』[高 외, 1958] 등에서도 간과되어 왔다. ‘생활’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당연한 어휘이기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야말로 토론의 입각점, 즉 우리들은 어떻게 개념을 변화시키고 어떤 의미로 ‘모험’의 대상으로 삼았고 무엇을 고찰 대상으로 해왔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념 용법의 확장, 변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생활’ 개념의 ‘모험’

‘생활’ 개념의 용법 확장 및 변천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된 Harvard-Yenching연구소에 소장된 중화민국시대의 서적을 정리한 목록 『美国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民國時期圖書總目』[龍, 2010]을 자료로 검토해보자.

이 책의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과 관계 깊은 ‘사회과학류’에 기재된 서적들 중 ‘생활’이라는 어휘가 포함된 작품 33점을 시대 순으로 열거하면 흥미로운 경향을 찾아낼 수 있다.

가장 초기인 1928년에는 『馬來半島土人之生活』, 『中国婦女生活史』와 같은 오늘날의 ‘생활’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1930년에서 32년에 걸쳐 『北平生活費之分析』, 『上海工人生活程度的一個研究』와 같은 후술하는 타오 멩허 등과 관련 있는 저작으로 대체된다. 이 시기의 ‘생활’은 구미의 이론, 사회실천적 영향 속에서 중국어 본래의 ‘생계’와 가까워서 수량적인 파악이 가능한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1934년에 국민당 정부에 의해 신생활운동이 시작되자 ‘사회과학류’ 항목 전체의 ‘생활’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서적은 이 정치운동에 관한 서적 일색으로 변하였고 이 경향은 1939년까지 이어졌다. 여기에서는 『農民的新生活』, 『兒童的新生活』, 『婦女的新生活』, 『文藝家的新生活』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정치운동으로서의 신생활운동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서적의 출판사가 南京正中書局이며 각각의 저자, 편집자들의 경력을 보면 이 시기의 ‘생활’이란 신생활운동의 그것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연구소 소장 서적 중 문두에 ‘생활’이 쓰인 서적을 정리해보면 1928년에 출판된 생물학 텍스트 『生活進化史ABC』가 효시이다. 1934년에는 타오 싱즈(陶行知)가 교정한 『生活的書』(汪達之) 등과 같은 사회운동적 성격의 서적, 그리고 지식 및 실천의 융합형태로서의 중요한 서적도 등장한다. 그러나 신생활운동의 시기에 급증하는 ‘사회과학류’와는 달리 1940년대까지는 전체적으로 출판량이 적다. 1940년대가 되자 1941년에 林語堂의 『生活的藝術』(原著는 “The Importance of Living”(1937), 일본어 번역은 사카모토 마사루 역 『生活的 発見』(1952)이다. 현재 일본어 제목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로 변경되었다.)이 번역 출판될 즈음에 이상적인 인생을 보내는 방법과 같은 서적들이 늘어난다. 연칭 연구소 소장 목록에 보이는 林語堂의 “The Importance of Living”의 중국어판은 黃嘉德 역, 西風社出版에 의한 서적이는데 거의 동시기에 다른 역자에 의해서도 중국어판이 출판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역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Art의 역어를 검토 음미한 동시대 중국 지식인의 지적 전제에 서서 저우 쩌런(周作人)이 제창한 「生活之藝術」을 방불케 하는 『生活的藝術』이라는 번역을 채용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생활’은 「智慧」, 「思想」, 「體驗」, 「幸福」과 연결되는 단어로 보급되었다. 그 의미는 앞서 검토한 1900년 전후의 화영사건의 단어를 부연하자면 계속되는 생존, 생애, 인생이라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林語堂에 큰 영향을 준 민속학자 저우 쩌런은 이미 1920년대부터 이러한 의미의 ‘생활’을 논했다. 이런 점에서 민속학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단어를 학문영역의 중심개념으로 삼아 사색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도 할 수 있겠다.

3. ‘생활’과 ‘사회조사’: 개선 대상으로서의 ‘생활’

토론을 위한 예비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중화민국기에 나타난 새로운 의미를 지닌 ‘생활’과 이를 ‘조사’하는 시선과의 관계에 대해 논해보겠다. 중국 사회학에서 초기의 체계적인 사회조사는 1914년에 실시된 『關於北京302個人力車夫生活情形』으로 보인다. 즉 여기서는 이미 초기부터 ‘생활’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크리스천 계통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입 학문으로서 연이어 개설된 사회학의 교원이었던 John S. Burgess의 지도아래 Student Social Service Club(사회실진회)가 실시한 것이었다. 이 조사에 참가한 후 영국에 유학했던 타오 멩허는 梁宇皋와 함께 당시 영국 사회학에서 활발했던 도시빈민층의 연구동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농촌과 도시의 ‘생활’에 관한 박사논문을 제출했다(Leong, Y. K & Tao, L. K. "Village and Town Life in China"(1915), 陶孟和·梁宇皋『中国的鄉村與城鎮生活』). 타오 멩허는 귀국 후 사회조사소 소장에 부임하여 많은 조사에 관여했다. 조사 대상으로서의 ‘생활’이란 대부분의 경우 도시에서 새롭게 탄생한 계층인 하층노동자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北平生活費之分析』(陶孟和, 1926), 『上海工人生活程度的一個研究』(楊西孟·社會調查所, 1930), 『上海市人力車夫生活狀況調查報告書』(劉宝衡·上海市社会局, 1934), 『成都市生活費之研究』(楊蔚·金陵大学農学院, 1940) 등을 발표했다. 이러한 ‘생활’에의 관심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조직에도 공유되어 『全国工人生活及工業生產調查統計報告書』(工商部, 1929), 『全国工人生活及工業生產調查統計總報告』(工商部, 1930), 『中大工人生活調查』(袁昂·吳永成, 1931年), 『鐵路工人生活調查』(賈銘, 1933) 등의 조사로 이어졌다(이 조사보고의 일부는 李文海 외, 2004에 재수록).

또 이 시기의 중국 사회학에는 ‘생활’을 다룬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다. Sidney Gamble은 Burgess처럼 크리스천 계통 대학을 통해 중국에 사회학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도 특정 관점에서의 ‘생활’ 조사의 깊은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이 시기의 중국 사회학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閻, 2004]를 참고할 것). Gamble은 주로 베이징에서의 조사를 조직했으며 Burgess가 도와 the Princeton University Center와 the Peking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 후원한 조사인 『Peking: A Social Survey』[Gamble, 1921]와 앵겔 계수 등 당시 최신 이론을 이용한 『二十五來北京之物價工資及生活程度』(孟天培·Gamble 지, 李景漢 역, 1925·1926) (平野正雄 역 『北京에서의 25년(1900~1924년)의 물가·공자·생활정도』, 1942), 『Peking Wages』(1929) 등이 유명하다. 흥미로운 것은 Gamble의 대표작인 『How Chinese families live in Peiping; a study of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283 Chinese families receiving from \$8 to \$550 silver per month』[Gamble, 1933]는 중국에서는 직역되는 방식으로 『北平的中国家庭是怎麼過活的』, 혹은 『北平的中國家庭是怎麼生活的』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변화하는 생활 개념에 흔들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일본에서 1940년에 福武直에 의해 『北京의 支那家族生活』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서의 일부는 관혼상제, 의류에 대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부제가 보여주듯 베이징의 283세대의 수입과 지출, 예금을 조사 분석한 경제적 관심에 기초한 조사결과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현재적 의미에서의 ‘생활’은 아니다.⁴ 여기에서도 생활 개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전개된 중국어 생활 개념의 사용이 지나는 함의는 당시 사회 ‘문제’가 되었던(당시 사회학의 주요 테마 중 하나였던 범죄 등) 도시부를 중심으로 한 하층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관심과 당시 유행했던 생활비 조사였으며 타오 멩허와 Gamble의 보고가 보여주듯이 현재적 의미에서는 ‘생계’라고 해야 할 문제의식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생활’은 중국의 독자적 사회학의 건설에 힘을 쏟으면서 다른 사회 조사의 형태를 만든 吳文藻가 지적한 ‘사회 조사의 근원은 프랑스 Frederic le Play가 행한 노동자 생활이 형성한 많은 가계부에 대한 현지 고찰로 거슬러 올라간다’[吳, 1935]는 조사 연구의 직접적인 연장선 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개된 ‘생활’ 개념과 이번 심포지엄의 그것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데, 생활 자체에 대한 파악이라는 점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확장된 ‘생활’ 개념은 수량적 파악이 가능한 대상인데 반해, 오늘 발표에서 유연하게 공유되어 있는 ‘생활’이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들의 관심은 무수히 가능한 과거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과거에 구속되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미래로 이어지는 현재, 즉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절대적인 지평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과의 관련성을 통합시키고 의미 지우는가, 다시 말해 ‘살아 있는가/살아 왔는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자료와 함께 기억, 구술, 신체기법 등을 방법론의 중심에 두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중국의 사례를 통해 ‘생활’이라는 얼핏 너무도 자명해 보이는 개념이 각 시기에 각 논자의 관심에 따라 변화, 전환되어 온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생존,’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 근근이 살아가는 생업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일부에서는 수입 지출을 중심으로 한 수치적으로 계측 가능한 대상이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교훈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계몽, 일시적으로는 몸동작, 예의, 교제, 근대적 시간 및 금전 사용 등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생활’이라는 개념은 규정하는 내용의 차이를 동반하면서 각각의 시기에 형성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4. ‘생활’의 개선, 향상 운동을 둘러싸고: 행정적 단편화, 운동의 주체, 개인화

이번 심포지엄은 ‘생활’ 개선에 관한 운동을 테마로 삼았다. 각 발표에 공통된 사항을 정리해보면, 상호 관련되는 1) 행정에 의한 운동에서의 ‘생활’의 단편화, 2) 운동의 주체성, 그 전개의 하나로서 3) ‘생활’의 개인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들은 가까운 과거의 현상으로 생활 개선에 관한 연구를 넘어서 향후 민속학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먼저 행정적으로 생활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 구체적인 대상의 문제화, 개선조치와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은 종종 단편화된다. 다나가 선생님의 기초 강연을 통해 알 수 있었던듯이 여기서 생활의 개선이란 구체적으로는 부뚜막, 부엌, 목욕탕의 개선이나 파리, 모기의 구제이며, 남선생님 발표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새마을 운동에 포함되었다고는 해도 주택개량, 하수구, 공동퇴비장 설치 등 몇 가지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했다. 이는 현재의 생활을 개선 혹은 ‘새로운 생활’을 획득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조치이기도 하지만, 운동의 구체적인 대상이 ‘생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른바 제유적인 관계임을 의미한다. 마치 ‘생활’의 일부로 이해되는 단편들의 개량은 분명 현재 우리들의 삶을 규정해 왔지만, 운동 속에서 개량되었던 이들 단편과 생활은 단순한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아니라 개량 항목 전체를 다 합쳐도 오늘날의 ‘생활’을 재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단편화된 항목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각을 포함한 관계성에 주목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생활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떠한 문제를 대상화하기 위해 변화해온 개념이라는 사실을 잊고 민속학의 중요 개념으로 다듬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사상적 공백으로 인해 민속학은 다나카[2011]와 같은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눈앞에 전개되는 우리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켜온 이 운동을 충분히 연구해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 결과 행정에 의한 운동으로서의 생활 개선에 대해 일정한 평가는 할 수 있어도 그 ‘생활’의 총체성을 환기시켜온 현지조사에 기초한 연구 활동이 지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했다.

위정자에 의한 운동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관심은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 총체성을 해체시키고 구체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되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운동의 주체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남 논문이 지적한 것처럼 주체성에 대한 주목은 ‘생활’의 쇄신을 목적으로 한 운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⁵

주체성 개념에 주목하면 예를 들어 다나카 강연이 지적한 생활개량보급원이 지역의 젊은 주부들을 조직하여 주민이 주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한 조건을 정비해가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 전후 신생활운동협회가 이전의 정부가 주도한 일련의 운동들과는 달리 자주적인 개선을 지원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는 지적에서 이러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고지마 발표의 행정측 기록인 홍보지를 이용한 운동 이해와 운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의 차이, 또 남 논문의 새마을 운동 초기의 시멘트 배포 사례, 저우 논문의 관광, 체면, 국민생활의 향상이라는 위정자의 담론과 사람들의 도시생활 체험 등에 대한 주체성 논의도 그 맥락은 비슷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장 정면에서 다룬 발표는 아마나가 선생님이었다. 이 발표는 서로 교류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라는 동일한 운동이기도 했지만, 생활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는가에 따라 이후의 전개가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즉 행정 지도에 의한 운동으로서의 생활 개선에서는 참가주체가 각각 서로 다른 에이전트로서 관여하고 단편화된 해당 항목의 개선과 함께 활동은 끝났지만,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 스스로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액터로서 참가하여 이루어진 개선은 항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주체성의 문제가 민속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제는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넘어서서 검토될 필요가 있겠으나 오늘의 주제인 ‘생활’은 다양한 내포(와 그 내포의 가능성)에 의해 중요한 문제들을 강하게 환기시켜 준다.

오늘 발표들은 저우 논문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생활’을 개선 혹은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운동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지금은 생활개선운동이나 새마을운동과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운동은 시들해졌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는 특히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만일 그러하다면 개인화되는 생활 향상을 위한 실천을 민속학은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저우 논문의 화장실 혁명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화장실이라는 언뜻 보기엔 매우 개인적인 현상도 그 형성은 이를 둘러싼 인프라 정비나 전문 설비 등의 조건, 환경, 기술이 관련되는 복잡한 전체 하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생존환경을 형성하는 ‘세계’를 상세히 고찰하고 자성의 기점을 창조해가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 때 강조해야 할 것은 민속학의 중심적인 수법, 즉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주관적인 사실들로부터 현상을 재구성하는 방법의 중요성이다. 여기에는 행정적 단편화를 거

친 ‘생활’의 파악, 암암리에 ‘조사자’와 ‘비조사자’의 분단을 자명한 전제로 하는 ‘사회조사’에서의 ‘생활’ 파악과는 다른 새로운 이해이다.

또 비록 ‘생활’의 계속적 구축이 개인화되더라도 모든 것이 개인에 의한 완전한 창조성에 맡겨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하향식이던 상향식이던 ‘생활’을 계속적으로 구축해가기 위한 모델, 지식, 경험을 얻어 해석하는 경로가 확보되어야만 한다. 개인화하고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한편, 모델, 지식, 경험을 요하는 상황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혹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변화를 규명한다는 현재적 필요성에 따라 과거 생활의 ‘감각’적 경험을 축적해온 성과와 필드워크로 얻은 성과를 아카이브화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 개인화된 사람들을 다시 연결짓는 기능은 비록 과거의 운동을 축으로 한 아카이브라 해도 동시대에 수평적 방향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아카이브를 이용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은 현재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민속학이 중시해온 대면적 상황이든, 또는 최근 발달한 SNS로 대표되는 비대면적 관계성이든 개인화된 사람들이 각각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생활’에 관한 아카이브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미 고립된 단편이 아니라 가변적인 네트워크 속에 유연히 포함되고 동시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지닌 지식과 실천의 결절점을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민속학이 어떻게 사회와 관여해 가는가라는 문제에 한 가지 방향을 제공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5. 맺는말

이상에서는 시대나 대상은 다르나 ‘생활’의 개선을 주제로 한 이번 발표들로부터 지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다.

이 글은 본 심포지엄의 발표들에 공통되는 ‘생활’이라는 개념이 가리키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으며 각각의 시대, 지적 배경 속에서 ‘모험’의 대상이 됨으로써 무엇을 파악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민속학은 ‘생활’ 개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삶의 향상, 개선운동에 관한 고찰을 충분히 축적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발표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필드 경험을 대상화함으로써 생활개선운동이 무엇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현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까지 중시되지 않았던 논점들, 즉 우리가 ‘생활’의 입각점의 양상이었다.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의 이 개념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를 위해 이 개념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민속학에 요구되고 있다.

注

-
- 1 이 글은 일본민속학회 국제심포지엄 ‘평범한 일상/변해가는 일상’ 제1부 ‘대상: 생활 변화와 생활 개선’에서 토론한 내용을 수정 가필한 것이다.
 - 2 당시의 중국어로 『生理』는 직업에 가까운 의미를 가졌다.
 - 3 심포지엄 자리에서 발표자 저우싱 씨로부터 오늘날 중국에서 ‘생활’에 해당되는 어휘로 ‘민생’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글에서 소묘한 중국에서의 ‘생활’ 개념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일본의 영향, 엔
 - 4 정 대학의 필드 실험기의 성과 등을 포함하여 당시 사회학적 조사의 맥락 안에 위치시켜 검토하는 방식으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는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5 여기에서는 번역어를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후쿠타케의 역서에 대해서는 당시 내용대로 제시했다.
 - 6 심포지엄 토론 때 청중이었던 이토 아비토 선생님께서 부터 ‘생활’ 개선이 지적, 실시될 때 그것이 평상시에는

애매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일방적인 시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바로 이 문제야말로 최근

중국 민속학에서 논의되는 문제들, 즉 ‘민속’의 ‘민’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것과 연결된다.

참고문헌

- 岩本通弥, 『「生活」から「民俗」へー日本における民衆運動と民俗学』、東国大学校文化学術院日本学研究所(編), 『日本学』第29輯、東国大学校文化学術院日本学研究所, 2009.
- _____, 『家族をめぐる二つの生活改善運動 民力涵養運動と新生活運動』、田中宣一(編著), 『暮らしの革命: 戦後農村運動の生活改善運動と新生活運動』、農山漁村文化協会, 2011.
- 閻明, 『一門学科與一個時代: 社会学在中国』、清華大学出版社, 2004.
- S.D.ギャンブル(福武直訳), 『北京の支那家族生活』、生活出版社, 1940.
- 許威漢、陳秋祥(主編), 『漢字古今義合解字典』、上海世紀出版社, 2002.
- 許少峰(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 吳文藻, 『西方社区研究的近今趨勢』、吳文藻人類学社会学研究文集, 民族出版社, 1935(1990).
- 高名凱、劉正琰, 『現代漢語外来詞研究』、文字改革出版社, 1958.
- 田中宣一, 『生活改善諸活動について』、『暮らしの革命: 戦後農村運動の生活改善運動と新生活運動』、農山漁村文化協会, 2011.
- 李文海ほか(編), 『民国時期社会調査叢編・城市(劳工)生活卷』、福建教育出版社, 2004.
- 龍向洋, 『美国哈佛大学燕京圖書館藏民国時期圖書總目』、廣西師範大学出版社, 2010.
- 林語堂(阪本勝訳), 『生活の発見』、創元社, 1937(1952)(『人生をいかに生きるか』上下, 講談社)、(原著: Yutang, Lin, “The Importance of Living”, New York, John Day)
- Giles, Herbert, “A Chinese-English Dictionary”, Revised & Enlarged, in Shanghai, London, 1892(1912 second ed).
- K.Hemeling,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standard Chinese Spoken Language<官話> and Handbook of Translation”, Shanghai: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916.
- O.Z.Tsang, “A Complete Chinese-English Dictionary”, The Republican Press. Shanghai, 1929.
- P.Poletti, “A Chinese and English Dictionary”, Shanghai: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905.
- S.D.Gamble, “Peking: A Social Survey”, New York, GeorgeH.Doran, 1921.
- _____, (field work in charge of Wang Ho-Chen and Liang Jen-ho), “How Chinese families live in Peiping: a study of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283 Chinese families receiving from \$8 to \$550 silver per month”, New York, Funk & Wagnalls, 1933.